

의 정 정 보

2006 - 6 8. 17

I. 최근 제·개정 법령	1
II. 최근 제정한 타시·도 조례	6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7

I. 최근 제·개정 법령

①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 ('07.1.20 시행)

① 개정이유

-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식재료·급식위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급식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 학교급식위원회 등의 설치

- 학교급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을 위한 경비 등의 지원

-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저소득층,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지역과 모·부자가정 등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함.

○ 학교급식에 관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의 마련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마련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요소별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 의무교육기관에서 급식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유예하도록 함.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06.7.1 시행)

①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06.1.11. 공포·시행)되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자 및 감사청구권자의 연령기준을 20세→19세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인명부 열람시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 청구인명부 열람시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 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심사의 객관성 강화
 - 조례·규칙심의회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청구요건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대학교수 등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위원을 5인 이상 포함하도록 함
- 부지사 및 부시장의 직급 변경
 -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를 관리관으로 보하던 것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함
-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책정 기준 개선
 - 인구감소에 따른 부단체장의 직급 하향조정 기준을 매 연도말 주민수에서 전년도 각 분기말 인구수를 산술평균한 주민수로 변경함

③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06.7.1 시행)

-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인상률을 고려하여 휘발유의 세율을 리터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 경유의 세율을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06.7.1 시행)

- 2006년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억제 목적으로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에서 1,000분의 265로 인상하려는 것임.

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06.8.20 시행)

-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연도 1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있으나,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이 미성년자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입학전형자료의 일부인 점을 고려하여 부정행위 중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반입 또는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의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⑥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06.7.19시행)

- 지금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발지역안에 필요한 학교를 적기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II. 최근 제정한 타 시·도 조례

■ 대구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06.6.30공포)

① 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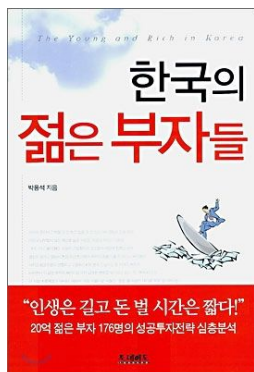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가 개정되어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② 주요내용

- 시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성인구 다수거주 지역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함
-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교육사업,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후생복지사업 등으로 함
- 시장은 센터를 여성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③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록> : 행복한 책 읽기



● 도서명 : 한국의 젊은 부자들

● 저자명 : 박용석

● 출판사 : 토네이도

● 출판년 : 2006년

● 페이지 : 310쪽

맨손으로 시작해 수십억 자산을 일군 젊은 부자 176명의 성공 투자전략 심층분석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열심히 돈을 모아 마침내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일군 사람들. 지금껏 우리는 그들을 ‘부자’라고 불러왔다. 아울러 근검절약과 검소함에 바탕해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 마침내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사회로 본격 진입하는 등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이 같은 부자의 패러다임 또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즉 ‘부자 되기’는 더 이상 인생의 최종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청춘’을 희생한 대가로 부를 얻기보다는, 젊은 시절과 노년 모두를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고자 부자의 길을 걸은 사람들, 이른바 ‘젊은 부자들’이 각별한 주목과 각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서 현재 유동성 현금자산 20억 원 이상을 보유한 30~40대 젊은 부자 176명의 성공 투자노하우와 마인드, 지혜로운 투자철학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저자 또한 대기업 직장인 평균연봉의 10배 이상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는 젊은 부자다.

저자는 2005년 한햇동안 176명의 젊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모든 투자전략을 심층 취재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는지, 왜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입체분석을 통해 독자들에게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젊은 부자들의 ‘20억 만들기 프로젝트’ 전격 공개

지금껏 한국사회에서 부자는 곧 ‘부동산 부자’라는 등식이 성립해왔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 붐이 부자들의 금맥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부동산투자만으로는 더 이상 커다란 부를 창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투자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해야만 하는 시기에 이른 것이다.

이 책은 부동산을 비롯해 해외 펀드, 주식, 채권, 달러, 나아가 소비자금융업으로 수십억 재산을 일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를 통해 부자의 반열에 오른 젊은이들의 생생한 성공사례를 담고 있다.

젊은 부자들이 말하는 한국사회에서 부자의 기준은 사업체 및 부동산성 재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 20억원 이상 보유자’다. 그들은 강조한다. “50대가 되기 전에 20억원 이상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확실한 시대에 경제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3040의 ‘2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그저 부자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 대신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뱃살과의 전쟁 (I)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자주 “뱃살 빼기가 가장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쏟는 관심과 노력에 비해 효과는 시쳇말로 대략난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다이어트. 특히 똥배 줄이기에 성공하는 경우는 100명 중 5명밖에 안된다.

이유는 뭘까? 대부분 단기간 속성으로 체중 감량에만 목표를 두고 운동보다 무조건 식사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무리한 방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뱃살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게 먹으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왜 살이 찘는지에 대한 분석과 살이 찌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꾸준한 노력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뱃살 빼기 첫걸음은 지방 안 먹기 ?

다이어트 중 제일 먼저 기피하는 것이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이다. 물론 지방 섭취가 많으면 높은 열량 때문에 체중 조절에 애를 먹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성공하기 어렵다. 기름기 없는 음식만 먹으면 며칠 못 가 금방 질리게 돼 쉽게 포기해 버린다.

또한 지방 섭취를 줄이면 건강도 해치고 단맛을 더 찾게 돼 복부 비만이 오히려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을 안 먹기보단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분해서 섭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탄수화물·단백질·지방 섭취 비율은 65% : 15% : 20%로 지방 비율이 높지 않은 수준. 지방이 복부 비만의 주범이 아니라는 얘기다.

올리브유를 비롯한 식물성 지방은 필수 지방산의 보고이다. 생선 등 어패류.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 등도 건강 유지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매일 적당량을 먹어 줘야 한다.

‘고당질 저지방’ 식사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 식습관상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총 섭취 에너지의 65%를 차지하는 탄수화물을 50% 정도로 줄이고 단백질 양을 20% 이상 늘리는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돼지고기는 기름을 뺀 보쌈 등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 주 3~5회. 30분 이상 운동이 적당?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운동 요법 요령은 자신의 최대 운동 능력 50~80% 범위 내에서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부 비만인 사람은 운동 강도를 50~60%로 낮게 하고 대신 운동 시간을 60분 이상으로 늘려 일주일에 5~6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몸이 바뀐 환경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주 3회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매일 하는 것은 근육 피로를 가중시켜 근육통이나 운동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뱃살과의 전쟁(Ⅱ)

운동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활속에서 스스로 찾아 꾸준히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운동은 매일. 오래. 심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살 빼기보다 뺄 체중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배드민턴·맨손체조·조깅·스포츠댄스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해 즐겁게 해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운동시간대는 오전·오후 어느 때나 큰 관계는 없지만 보통 식사 직후에는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 지방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 윗 몸 일으키기 하면 뱃살 빠진다?

복부나 허벅지 등 특정 부위의 살 빼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는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면 그 부위 지방만 특별히 많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조직의 지방이 총동원된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사용되는 지방 연료는 복부주변 피하지방과 떨어져 있는 팔·간 등 저장 지방도 함께 쓰인다. 특정 부위 체지방 양 감소는 운동 부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사용되는 총 에너지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윗몸 일으키기는 복부 근지구력을 늘려 멋진 몸매를 완성하고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운동 효과는 있지만 뱃살 빼기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하 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천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속보·조깅·자전거 타기·수영과 같은 큰 근육들이 사용되는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여 전체 체지방 감소를 이루어 놓은 뒤 뱃살 근육을 향상시키는 윗몸 일으키기 등의 근력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뱃살 빼기 3계명: 이것만은 꼭 지켜라

1. 규칙적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라.
2. 아침 식사 꼭 먹고 흰 음식을 멀리하라.
3. 술자리서 특히 고열량 안주는 금물!

♣도움말 : 박용우 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박원하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실 교수♣